



제 4 장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무형문화유산 전수 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간 네트워크 : 과거는 낯선 나라가 아니다*

아마레쉬와르 갈라**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교수
태평양아시아 문화다양성 연구소 창립단장

한 국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가 발족된 것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열린 주요 행사에
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문화적

* 이 제목은 데이비드 로웬털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고전작품 「과거는 낯선 나라다(The Past is a Foreign Country)」(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1985)에 나오는 희곡의 제목이다. 아마레쉬와르 갈라의 「과거는 낯선 나라가 아니다, 호주와 남아프리카 박물관의 탈식민지 변화에 관한 고찰(The Past is not a Foreign Country, Reflections on the Post-Colonial Transformations of Australian and South African Museums)」, 「아프리카 박물관의 국제협의회 법률제정 모임을 위한 절차(Proceeding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frican Museums)」(루사카, 잠비아 1999년 10월)도 함께 참조. 이 논문이 강조하는 바는 남아프리카에서 유산이란 단어는 주로 Amasiko, Ditso와 Mfiele와 같은 현존하는 유산을 일컫는다는 것이다. 식민지 관행에서 물려받은 유산은 주로 유형유산에 초점을 둔다. 국제아프리카박물관협회 (AFRICOM)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무형문화유산을 인식하여 그것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증진한 후 전체적인 보존가치체계와 탈식민지적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개발에 근거하여 유형, 무형문화 유산의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다.

** 갈라 교수는 Po Box 6185 St Lucia, Qld 4167 또는 a.galla@uq.edu.au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

1_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은 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기둥(www.onsustainability.com)으로 가정
한 아태지역 인류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연구소(Pacific Asia Observatory for Cultural Diversity in Human
Development)를 통해서 개념화되었다. 이 개념은 유무형의 문화, 유산과 전체적인 예로서 지속가능한 발
전으로 시작되었다. PAO는 유네스코 문화정책 및 문화간대화국과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를 통한 유네
스코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다. PAO는 유네스코호주위원회의 인정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이것은 유네
스코 문화다양성선언(2001. 11. 2)의 액션플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www.pacificasiaobservatory.org

참여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 기구인 아·태 무형문화유산센터가 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와디 알리 살레가 의장을 맡은 가운데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처음으로 등재신청된 유산 중 일부를 유네스코가 정한 긴급 보호 무형문화유산 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다. 이는 전문가 심사위원 활동과 비정부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 이해당사자 집단 대표의 참여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인 회의였다.

두 번째로, ‘문화 아젠다 21(바르셀로나)’ 사무국은 세계 각국의 도시와 지방 정부와 함께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보호,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참여민주주의 실현노력에 지지를 보내면서 「문화, 지방 정부와 새천년 개발 목표」²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2000년에 채택된 ‘새천년 개발 목표’는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야심차고 중요한 기틀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가 새천년 개발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 프로그램과 국가 정책이 아직까지 문화를 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와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최초로 강조한 인류발전보고서(2004)가 발간된 지 5년이 지났다.³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인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Our Creative Diversity*」(1995), 「스톡홀름 실천 계획 *Stockholm Action Plan*」(1998)과 「스톡홀름 실천 계획 +5 *Stockholm Action Plan +5*」(2003)등에 바탕을 두고 문화를 통합적인 지역 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변화, 진보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2_ 보고서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문화위원회가 스페인 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2009년 6월 15일에 의뢰한 보고서. 9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출간되었다. <http://www.agenda21culture.net>

3_ 「오늘날 다양한 세계의 문화적 자유,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 뉴욕, 2004.

세 번째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주도하여 발간한 세계문화보고서는 10월 20일 화요일⁴에 열린 제35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상주 대표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들이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해 직면하는 과제들에 관한 포괄적인 분석으로, 문화와 지속가능성, 인권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이해 방향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적용하는 문화다양성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평을 지방, 국가, 지역과 국제적 수준으로 넓힌다.

마지막으로, 최신 인간발전보고서는 인구증가 및 인구이동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⁵ 세계 어느 곳을 불문하고 인구학적으로 바라 본 미래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이 불가피하다. 세계보고서의 권고 중 특히 제8권고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들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문화적 자유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라는 전례없는 움직임에 맞닥뜨렸다는 사실과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과 문화유산 이해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동체 참여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11조 b와 제15조는 '무형문화유산의 창출·계승에 적합한 공동체, 집단, 개인, 전문가, 전문 기술연구기관 간의 기능적이고 보완적인 협력'의 장려를 요구하고 있다.⁶ 이 조항들은 단순히 공동체에 자문 제공 및 접근을 요구할 뿐 아니라, 최초로 진정한 문화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이해당사자 집단과 다양한 집단이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4_ 다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요약본과 영문 원본은 유네스코 웹사이트 www.unesco.org/tools/fileretrieve/115598f4.pdf에서 입수 가능하고 보고서 전문을 원할 경우 www.unesco.org/tools/fileretrieve/1238a682.pdf를 참조.

5_ 「장벽 극복 : 인간의 이동과 발전(Overcoming Barriers: Human Mobility and Development)」, 국제연합개발 프로그램, 뉴욕, 2009.

6_ 「협약이행운영지침 제3장」, 유네스코, 파리, 2008.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은 유네스코의 문화분야 전체 협약들 가운데 개인, 공동체, 연구 단체와 비정부기구에 가장 민주적인 지침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거듭 강조할 만하다. 이것은 정부간위원회가 운영지침의 초안작성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에 관한 의미 있는 논쟁과 토론을 벌인 결과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문화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과정과 전수에 중요한 언어(특히 사멸위기에 처한 언어들), 교육, 소통과 문화적 콘텐츠, 창의성과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요긴하다. 그러나 각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개념성, 명확성과 엄격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제 중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각 국가와 공동체의 문화 다양성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국적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에 기반한 접근 방법, 상호성, 당사국간 상호존중을 위한 최종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다국적 공동등재 신청은 과거 식민지역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자유의 본보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특정 주민들이나 공동체 집단들을 문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형화하는 경향을 경계한다.⁸ 민족이나 공동체는 다원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정체성과 다양성은 협약 하에 목록등재과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어떻게 한 집단 또는 공동체에 속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와 전승자를 정형화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무형문화유산의 ‘축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순전히 ‘단 하나의 정체성’을 지녔다고 간주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요소들이 어떻게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체 내의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라는 구조로 개념화할 수 있을까?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요소

7_ 아마레쉬와르 갈라, 「유산보전을 위한 첫 번째 목소리(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무형유산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제3권, 2008, 10-25쪽.(www.ijih.org)

8_ 아마르티아 센, 「정체성과 폭력 : 운명의 착각(Identity and Violence: the illusion of destiny)」 뉴욕, 노턴 출판사, 2006.

들에 대한 존경과 영예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 무형문화유산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문화 및 교육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⁹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인 다문화주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¹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의 추진자와 조력자로서 우리의 윤리적 행동은 무엇인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인간의 발전은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범지구적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개발 계획은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변화, 건강증진, 인권과 문화적 권리, 신체적 폭력의 부재 또는 지속가능한 물리적 환경 중 한 가지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기능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들은 서로 관련 있고, 협력적이며 동시다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수년에 걸쳐 확인되었다. 그 과정들은 2001년 11월에 발표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에 복합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묘사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9·11 이후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선언의 중요성은(그 당시 존재했던 세계적인 충격적 상황 가운데) 보복성 폭력과 적대적인 정책 대신에 세계적인 집단행동과 공유된 가치관을 위한 명확하고 이성적인 비전으로 대체·강화되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인간의 차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지적, 경제적, 정신적, 윤리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고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문화적 권리, 생물학적 다양성, 개개인의 자존감, 사회적인 조화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고, 세계화에 인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다양성을 주장한다. 하나의 국제적인 정책 모델로서 문화다양성선언은 시민사회단체의 변화를 돕기 위한 국가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지역 사회의 화합,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 인간 세계의 새로운 이해를 통한 경제 발전 방식, 특히 문화 간의 관계, 물리적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상시킬

9_ 시민 사회단체와 교육과 공동체 문화 개발에 관한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재고를 위해서는 코먼웰스 의장인 아마르티아 센의 주관 하에 이사 다수가 출간한 「평화를 위한 시민의 길, 존중과 이해를 위한 코먼웰스 위원회 보고서(Civil Paths to Peace, Report of the Commonwealth Commission for Respect and Understanding)」 참조, 코먼웰스 사무국, 런던, 2007.

10_ 라메 안토니 아피아, 「정체성의 윤리(The Ethics of Identity)」, 프린스턴대학 출판사, 프린스턴, 2005.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전문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과 공동체 네트워크 및 무형문화유산 전수를 위해 자연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이 포함되게 되었다.

문화는 환경보호, 사회발전과 경제 발전¹¹과 아울러 발전의 네 기둥 중 하나로 인식된다. 빈곤퇴치를 위한 최선의 책략과 방법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이용한 많은 모델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역문화'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합 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모델들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빈곤해소 프로젝트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맞춰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네트워크와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전승은 공동체의 문화발전과 역량구축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에서 적용하고 생태박물관학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공동체 주도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개발의 지도를 작성하고 계획하는 접근방식과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 준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론으로 생태박물관학이 이용되어 왔다.¹² 예를 들면 하롱 생태박물관이란 발상은 여러 자연보호기관과 여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베트남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이는 사람들과 환경이 생산적인 전략 관계를 구축할 때야 비로소 보호와 발전 사이의 갈등이 해결된다는 단순한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생태박물관 개념은 전체 만물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보고, 관리를 위해 '해석적' 접근방식을 도입했다. 해석적 관리는 자연의 구성요소와 변천, 유형, 무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변하는 평형상태에서 서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 집중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와 이해당사자 공동체 집단은 평형상태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해석'하고, 필요하다면 구성요소들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 접근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활동 및 과거와 현재를 전체적인 환경자원의 기본 구성요소로 본다는 것

11_ www.onsustainability.com

12_ 아마레쉬와르 갈라, 「베트남 생태박물관의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in Ecomuseum Development in Vietnam)」, 『국제박물관저널(Museum International)』 제227권 57호, 2005, 101-109쪽.

이다. 즉 문화유산지역과 그 주변의 인간 집단이 이룩한 문화, 역사, 전통과 활동들이 자연 경관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의 한 부분을 이루고 두 요소가 지속적인 상호관계 속에 있다.

이런 방법론은 모든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는 살아있고 발전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립된 특정 상태에서는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는 상호의존적이다
- 보전과 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자원의 이해를 위해서는 자연과 변화 과정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해석은 자원의 요소, 체제, 변화 과정의 상호의존을 인식하는, 자원에 대한 총체적 관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실제로 생태박물관학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참여집단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여성, 젊은이, 토착 공동체와 다양한 흥미로운 집단을 실제로 통합하는 문화다양성이 중요하다. 생태박물관 개념에 관한 연구와 개발은 세 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고 있으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프로젝트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의 내용면에서는 지역적이지만 세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전제로 통합된 문화유산 관리 접근방식, 지속가능한 개발 주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의 역량 구축, 문화 간 대화의 수단으로서의 우수한 문화유산 해석이 이해 해당한다. 이는 다양한 청중들의 인구통계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중심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은 통합된 문화유산 관리모델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에 국립 문화유산법과 관련법규, 2009년의 수정법안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박물관 개념은 자연과 문화 환경, 이동, 부동, 무형, 유형문화 유산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롱 생태박물관을 통한 문화권 간의 대화는 사람과의 환경을 맺어 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시연과 해석은 자연과 자연 보호, 특히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해석은 특별한 개념이나 관점을 합법화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석을 통해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과 문화적 이해와 같은 사회적인 주요 논점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더욱 분명하다. 풍부하지만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 다수가 겪고 있는 극빈과 피폐함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 경제, 관광 상품 개발 사이에 갈등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이 갈등은 양자택일을 요하는 문제로 취급되어 해결이 어려웠다. 가장 큰 난제는 관리자와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을 하롱 생태박물관 개발로 조성된 참여의 장으로 모으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9 유네스코 세계 문화보고서'와 '2009 지역 문화 어젠다 21' 보고서가 하롱 생태박물관을 새천년개발계획과 빈곤퇴치라는 맥락에서 다루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베트남 프로젝트는 하나의 예로서, 새로운 네트워크에 중점을 맞춘 카테고리 2 기구인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에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공동체 유산 보호활동을 재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연구소와 관리 기관들은 이해당사자 공동체와 집단의 참여 과정 및 그들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접근권 및 평등권 담론의 일환으로 자문과 참여를 통해 문화적 민주주의를 점차 도모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단순한 접근에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적절한 참여 능력 함양을 통해 활동적 참여 및 권력 구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전승자의 주인 의식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과정에 있어 무형문화유산 관리기관, 협회, 기금을 소장한 이들 및 일차적 이해당사자와 연행자들의 민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을 또 한번 표명함에 있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 과거 구전 역사 및 민속생활에 관한 연구는 유물 및 유적지 중심의 유산관리 접근법에 속한 부차적 연구에 불과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산층, 도시남성의 관심사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주로 유형유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토착민들과 이주민 그리고 소수민족의 유산은 대개 식민지의 ‘다른’ 담론의 상상력 안에 갇혀있었다.
- 구전과 민속학이 무형문화유산보호 노력에 기여하는 동안 종종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오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까지도 유산 보존과 공공 교육은 프로그램 계획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후순위 분야에 속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은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못난 것이다.
- 아태지역의 일부 국가에서 일반 대중은 좀처럼 유산 자원에 근접하거나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대중에 대한 전수활동 접근은 효과적인 자질 관리 및 관광과 같은 국제화 압력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
- 기록 유산, 유형 문화, 조경, 난파선의 잔해 등 상당한 유산 재료가 명확한 보존 지침이 없고 공공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개발을 위해 다른 분야의 유산 보전 활동에 부적절한 지침을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유·무형 유산 통합 관리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기존에 유형유산 보전 방식을 무형유산 보전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위험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
- 지난 20년간 ICOM, ICOMOS, IFLA, ICA, ICCROM, 유네스코와 같은 기관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근까지도 토착 유산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거나, 토착유산을 문화유산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는 경

우가 있다.¹³ 2007년에 개최한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 및 토착민에 대한 유엔 의회 포럼은 이와 같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모범적인 박물관을 통한 리더십은 스미소니언과 같은 주류 유산 기관에서 토착민들의 창조성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¹⁴

- 문화 계획은 지자체의 핵심 부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문화유산관리는 아직 지역적 맥락과 계획 과정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 ‘지역 문화 아젠다 21’은 지속가능한 기틀을 마련해준다.
- 유산보호활동을 위한 자원분배는 공동체 차원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변칙적인 경우가 있다. 이는 바로 다양한 정부 차원의 공개 토론과 협동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형유산보전을 위한 공동체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재원이 필요하다.
- 20세기의 다문화적 혼성화나 역사적·사회적 운동에 기반한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기관과 당사국은 거의 없다. 토착민 공동체 및 다문화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사회사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위협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요소 중 상당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연구, 지원책,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 내에 공동체 역량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 다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둘 사항들을 도표화한 것이다.

13_ 아마레쉬와르 갈라, 「유산 커리큘럼 및 문화다양성(Heritage Curricula and Cultural Diversity)」 다문화 공사, 총리 및 각료, 캔베리, 1993; <http://icom.museum/diversity.html>; www.onmuseums.com

14_ 마크 히치, 에이미 피워스 편, 『21세기 원주민의 우주와 박물관 : 미국 인디언의 국립박물관의 중요성(The Native Universe and Museum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뉴욕 : 스미소니언연구소 출판사, 2005.

지원책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자 집단 일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 활성화 · 이해당사자 집단 일원의 IGO/INGO 문화 기관 접근권 및 IGO/INGO 문화기관에 대한 당사자 공동체 일원의 접근권 · 다양한 매체 활용, 타언어권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포함 ·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 비정부 기관에 로비활동을 펼치기 위한 압력집단 결성, 효과적이고도 도덕적인 참여 보장 문제,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 문화다양성증진 문제 등 포함 · 일원 참여 원칙 홍보 · 지역적 · 공동체 바탕의 탈식민지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자원 및 인프라 공유 · 뉴스레터, 워크샵, 포럼, 심포지엄, 인터넷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 · 평등한 문화 활동을 향한 작업 · 협동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 위원회에서 특정 회원 중독 독식 금지 및 일부 회원 소외 금지 · 정책 결정 기구에 대한 대의원 자원 체계 제공 · 국제기관과 분명한 지방, 지역, 연방, 국가 네트워크 구축
연구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컨트롤, 지적재산권, 저작권 허용 · 전문 활동 및 연구에 대해 도덕적이며 충분히 논의를 거친 표준 고수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는 안전한 도식화 및 조사 자료 이외의 저장 목록 · 자문, 참여, 협상에 대한 도덕적 표준 · 언어 다양성 존중 · 남 · 녀 · 노 · 소를 비교 · 대조하는 주제 · 환경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 · 지역적 연계 (예 : 아태지역) · IGO와 INGO의 정책 연구서에 대한 정보 · 유 · 무형 유산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개발 접근 · 훈련 허용 · 인센티브 펀드 조성-기금 마련 · 지역에 기초한 자원 센터 활용 및 개발 (예 : 카테고리 2 기구) · 후원에 대한 기업 지원 등 · 협동 및 조율을 통한 유용 자원 최대 활용

결론

결론적으로 필자는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둔 유산의 가치와 주요 무형문화유산 요소에 대한 표현 및 접근법 조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보호 기관 양성-통합 지역 계획, 문화자원의 도표화 이외의 다양한 조치

- 세계화와 현지화의 균형 확보-글로벌(*global*)이라는 단어의 외연적 의미 이상의 탄탄한 관계 요구
- 유형, 무형, 이동, 부동, 자연,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모든 부처가 협력과 조정을 바탕으로 통합된 전문적 접근법 장려
- 경제 개발, 유산 관광, 고용 창출과 연계하여 유산관리 전략 개발. 공동체 편익 분석의 기본 모델과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다양성 및 유산 관광을 위한 지방 정부 및 아태지역, 범아시아 태평양권의 기준 확립 (예를 들어 유산 관광에 관한 프놈펜 비엔티안 현장. 관련 사이트 www.icom.museum 참조)
- 유네스코 2003년과 2005년 협약이 문화 산업에 불리일킨 새로운 활기로 인해 무형문화재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시범 프로젝트의 기틀 마련
- 역사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새로운 목표, 인프라, 역량을 통한 다양한 아시아권 사람들의 유산의 대표 목록 작성 장려
- 기존에 주목 받지 못했던 아시아태평양권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책임 확대에 역점을 두고, 기록 및 미기록 활성화와 지적 문화재의 신탁 관리에 있어 복합성 지지
- 자치권 확보 및 비정파적인 유산 담론 유도를 위해 정부 기금에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메커니즘 장려
-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툴 키트 개발 및 배급,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 소유권 및 전수 의지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권한위임 방법론으로서 생태박물관학의 역할을 포함
-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아카이브, 유산 협회, 세계유산지역, 공원, 보호기관과 같은 유산 관리 기관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민 공간으로 활용, '지역 문화 어젠다 21'에 담겨있는 통합환경관리의 기틀 안에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들의 유산을 한데 접하도록 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활용
-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요소의 착취 근절을 위한 지적유산 및 문화적 유산 권리 제기
- 이해당사자의 무형문화유산 요소 전수 및 참여 강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옹호에 대한 조율된 접근
- 국제박물관협의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국제공예협회(ICA),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국제전통음악학회(ICTM) 등 전문적

인 비정부기관 및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구의 건설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역량 있는 허브 구축 및 이를 위한 한정 자원 최대 활용

결론적으로 필자는 세계 인구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21세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비정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그들만의 탈식민지 기구인 태평양도서박물관협회(PIMA)를 만들어 박물관과 문화센터를 다루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이 모든 개발 관련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착민들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곳으로서, 문화센터는 이들 도서국가들을 위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남태평양포럼, 남태평양 위원회 및 유네스코 서사모아 아피아 사무소는 관련 지역 국제 비정부기구로서 보호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효과적인 아세안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남아시아 국가들도 남아시아협력기구(SAARC)의 비호 아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2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21세기 탈식민지 시대의 배경에서 하위 지역형성과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고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태지역의 첫 번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 과거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낯선 나라가 아니다.